◇서돈각 사장

◇류진수 부산사장

◇이상진 광주사장

◇법타 대구사장

◇박재선 청주사장

'깨침의 소리'로 포교혁명

불교방송 개국 7주년 성과와 과제

지방국 4곳 확충 전국방송망 가속

횡령사고 규명등 상처치유 시급

지난 90년 5월 1일 세계최초의 '불교방송국'이 첫 전파를 터뜨렸다. 라디오 방송매체를 통한 포교의 새 장이 2천만 불자들의 원력과 성금으로 이뤄져 7주년을 맞았다. 불교방송은 개국 이후 94년에는 불교쿠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국을, 95년 11월에는 불교대구방송국, 그리고 지난 25일 불교청주방송을 개국하는 등 1개 중앙국과 4개 지방국을 통해 불교방송의 전국화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또 개국이래 '자비의 전화'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등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신행과 포교의 혁신을 이루었으며 '거룩한 만남' 프로그램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도 했다. 또한 17사단 불상폐기사건 등에 대한 신속한 보도와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고, 90년 여름 수해때는 수재민 돕기에 앞장서는 등 공증파매체로서 몫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교방송의 오늘 모습은 상처투성이다. 지난 95년 2월 불교방송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불교방송이 그 상처를 씻고 새로 태어나는가 싶더니 올해 1월 70억원이 넘는 횡령사고로 다시 수렁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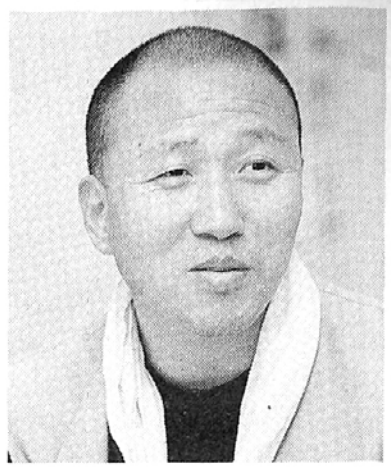
불교방송의 이같은 오늘의 모습은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계의 분석이다. 전문경영과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제작 등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 그 단적인 예로 방송국 개국초기 전체지출비 가운데 약 60%를 차지했던 방송제작비가 지난 96년에는 약 17%로 대폭 감소된 것이라든가, 지방국의 잇단 개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국 관리의 미비로 불협화음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점도 그 하나다. 또 방송국 운영의 최고 의결기관인 재단이사회가 제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출자금 3억조차 완납하지 않은 이사도 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교방송을 이끌어갈 '주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1대 장상문 사장을 제외하고는 개국이래 사장 임기 4년을 제대로 채운 사장이 없었다. 장 사장의 타계로 93년 7월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인섭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김태호, 강한필, 박종하, 조해형, 서돈각씨 등 3명의 사장 또는 사장직무대행이 불교방송을 거쳐갔다. 불교방송이라는 큰 배를 움직일 제대로된 경영진 없었던 불교방송은 흔들리고 또 흔들려 표류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의 상황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지적이다.

치밀한 전문경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없이는 위성방송, 케이블TV, 지방민영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의 출연으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라디오방송매체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고, 불교포교라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위해 불교방송은 거듭나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강원, 제주, 전라지역등 계속적인 지방망 확보로 명실상부한 전국권방송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여기에 걸맞는 질높은 프로그램 제작으로 타매체들과 승부를 겨뤄야 한다.

새로 거듭나기위한 불교방송 개국 7주년의 최우선 과제는 이번 공금횡령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이와함께 내부결속과 투명하고 신속한 방송국 정상화 운영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만 개국이래 표방해온 '깨침의 소리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 불교방송 고유의 기능과 특성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교계 북한동포돕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범불교기구로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가 발족돼 구심점을 갖게 되었다. 29일 출범한 불교추진위의 상임집행위원장 효림스님(보광사 주지)을 만났다. 〈편집자 주〉



수요 인터뷰

북돕기 불교추진위 상임 위원장 효림스님

"범종단 민족공동체운동 전개"

"굶주리는 동포 구함은 민족화해 한 방편"

-범불교적 모금창구를 마련한 셈입니다. 그 과정과 창립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단체들이 모였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굶어죽어가고 있는 내 민족을 살리자는 의지, 그것 하나지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거라 기대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범불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의 식량지원은 동포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족화해의 길을 여는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북한돕기 범불교기구로서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지요.

▲전국 규모의 산하단체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기구확산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22일 월주스님을 방문하고 종단협의회를 통한 각 종단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이에 제동을 거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알아보니 중앙신도회 회장이 개인의 생각을 내부적 논의없이 신도회장 명의로 게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신도회 역시 함께 북한돕기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조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타종교인에 비해 저조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불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현재 경제가 악화되다보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 도울 여력이 어디있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1년간 음식쓰레기로 버리는 돈이 8조원에 이릅니다. 반면 북한 식량문제는 4천억원이면 가능하지요. 배고픈 호랑이를 만나자 나를 잡아 먹으라고 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불자들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기자

"자율성 확보 신행결집 모색"

직장 직능단체 지방연합 추진 배경

구성원들 소속종단 다양

中信會 사찰등록 규정 불만

◇재가불자연합은 23일 16개 단체대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단을 보강하는 한편 신도단체 결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창립 한달을 넘기고도 부회장단의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불자연합(공동회장 안동일 외3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가단체 결집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상반기중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초 창립할 (가칭)대구신행단체연합회도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독자노선 선언의 가장 큰 이유는 재가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앙신도회는 사찰신도회가 아닌 직장 직능 및 개별신도단체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조계종 사찰등록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도단체들은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굳이 사찰에 소속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찰에 등록하면 아무래도 자율성에 제한이 따른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3일 재가불자연합은 임시총회에서 사부대중의 종단운영 참여를 강령에 포함시키는 정관개정을 회장단에 일임했다.

정관개정(안)에는 △사부대중의 종단운영 참여 △민주적 공개적 교단성취 △불교개혁의 지속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 제정 △불교내 폐단 및 사회불합리를 극복하고 정토세계 구현을 재가불자연합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신도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중앙신도회 미가입 신도단체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초파일 이후 신도단체 간담회를 통해 서로간의 이견을 확인하고 거리를 좁혀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종래 사무총장은 "설령 가입하지 않더라도 서로 협조하는 관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모든 신도단체의 중앙신도회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재가단체는 조계종사찰 중심의 중앙신도회와 특정 종단·사찰에 소속됨이 없는 직장·직능 및 개별 신도단체 결집체의 두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직능 단체들은 구성원들의 소속종단이 다양해 특정종단에 소속되기 어려운 현실이며, 또한 승단과 협조하는 별도의 재가조직으로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들 직장 직능단체들이 지역을 단위로 재결속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앙신도회 외의 신도단체 결집에 대해 교계에서는 '대립'이라는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나의 단체로 힘을 결집시킨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성격을 달리 하는 단체가 협조 보완하는 체제가 불교계로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재가불자연합의 한 관계자는 "승단의 영향 아래 있는 중앙신도회는 아무래도 활동반경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앙신도회와는 성격이 다른 신도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신도회가 승단이라는 구심점과 튼튼한 재정력이 뒷받침되었다면 새 신도단체는 말그대로 맨손이다. 단지 민주적 합의구조가 얼마나 힘을 결집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정성운 기자

목어

'과외 망국병'

"지난해 우리 국민은 사교육비로 20조원을 썼다. 교육부예산 15조원과 합치면 국가예산의 절반과 맞먹는다."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95%가 평균 2.5개의 과외를 받고 있다. 가구당 과외비용 월평균 35만원. 서울시 2천가구중 3.1%는 매월 1백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다."

"과외비 조달을 위해 주부들은 파출부로까지 나서고 있다."

"사교육비가 국민생활 수준을 희생시키는 주범이다. 과외비 부담을 못이겨 자녀를 조기유학시키거나 이민을 가는 사례도 많다."

"과외비의 과중한 부담이 부정부패를 조장한다."

"서초구 S고의 한 학생은 6과목을 주2회씩 1천2백만원의 고액과외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과외에서도 백화점식 소비행태를 보인다. 비싸게 불러야 명강사인 줄 안다."

"지나친 과외부담으로 우울증·불안증을 호소하며 정신과를 찾는 어린이도 많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조차 '학교에서는 기본만 가르친다. 나머지는 학원에서 배워와라'고 한다."

"사교육 병폐 해결책으로 '학원수강료 인상억제' '과외금지' '공교육 내실화' '입시위주 교육정책 개혁'같은 근원적인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

'과외망국병' 실태를 조사분석한 매체들의 보도 내용이다.

자식 잘 되라고 부모들은 피땀흘려 번돈을 아까운줄 모르고 쏟아붓고 있다. 그것이 나라와 집안에 망조들게 하고 자식 시들게 하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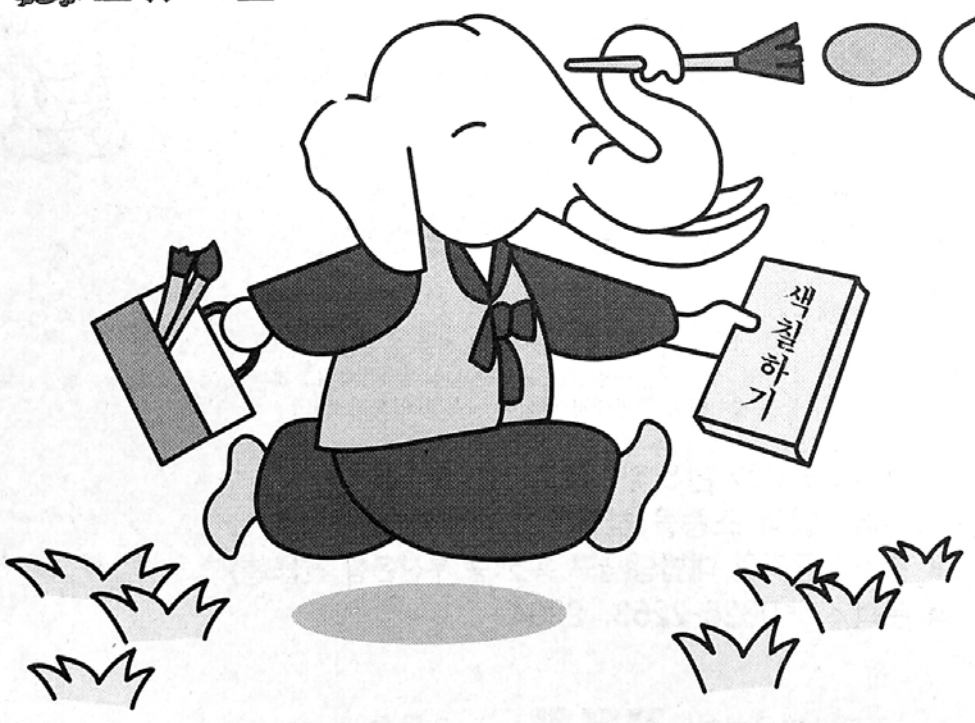
과외망국병을 고치려면 먼저 이땅의 어머니들이 현명해져야 한다. 더불어 교육정책이 하루속히 개혁돼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가꾸는 참교육이 실현돼야 한다.

"강건너 기다리는 언덕 있어라/ 하늘에 별 있어라/ 기다리는 사람의 눈에 별 있어라/ 별 있어라/ 별 있어라."

최근 출간된 高銀시인의 시집 〈어느 기념비〉에 실린 '별'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책가방과 경쟁심에 눌리기 보다 강건너 언덕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기다림에 가슴 설레이며 자랐으면 좋겠다.

연꽃그림



코끼리 스님과 함께하는 —
부처님 (팔상도편) 색칠하기

◎크기: 크라운판(360×250㎜) 76p
◎정가:오천원(₩5,000)

두손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쥐어주기만 하면
그냥 아무곳에서나 그림을 그려대는 새싹불자들의 맑고 깨끗한 가슴에
바른불교의 새김을 위하여 「부처님 색칠하기」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코끼리스님과 함께 부처님 오신뜻을 되새기며 색칠하는 과정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훌륭한 재능을 무럭무럭 키울수 있습니다.

편집인 김지산, 발행인 박진성행 합장

예금주 : 박미경
◎ 국민은행:293-21-0061-451 ◎ 농협:054-12-150637
◎ 조흥은행:327-04-058551 ◎ 우체국:104935-0006753

※ 단체주문, 법보시용주문에는 특별할인가격으로 드립니다. ※ 사찰단체구입시 앞표지에 사찰명을, 뒤표지에 법회안내를 해드립니다. ※

도서출판 연꽃그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빌딩 1104호
TEL: 02-3273-0066 FAX: 02-3273-1915